

다시 뵈 수 있겠지요?

주중에 어느 권사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, 5 개월만의 첫 외출이셨다고 합니다. 짧은 만남이었지만 참 반갑고, 고맙고 감격스러웠지요.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. 3 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, 6 월부터 시작된 현장예배, 이제 9 월부터 현장예배를 7 시, 9 시, 11 시에,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실황 중계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헤브론 현장예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우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습니다. 지금처럼 사전등록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를 잘 협조해 주신다면 큰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.

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미 떠나 보냈거나 보낼 준비를 하시겠군요. 코비드 사태로 학교 당국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. 그저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랄 뿐입니다. 예전에는 선택 사항이던 온라인 수업, 강의, 예배, 회의 등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.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어서 마음이 부뚱합니다.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교사 및 교역자들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. 온라인을 사용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교우들의 소식들 중,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환우들 소식입니다. 매일 새벽마다 중보 기도하는 환우들과 가족들 외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됩니다. 어떤 분은 지옥같은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. 대부분은 마치 올 것이 왔다는 것처럼 덤덤하게 말씀합니다. 그러나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힘드실까요? 검진과 수술을 앞둔 교우들을 위해 때로는 공개적으로,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. 뵈지 못하던 5 개월을 몇 번이나 더 지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라며, 너무 늦지 않게 뵈면 좋겠습니다.

2020. 8. 16. 임철성 목사 올림